

우리동네 자율방범대를 아십니까?

기고

김명선

광주경찰청

자율방범대 자문관



새미씨는 야간 10시쯤 되어서 퇴근한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지친 몸을 내려서 약 15분 정도 골목길을 걸어서 집으로 간다.

항상 골목길은 음침하고 불안하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그때 멀리서 반짝이는 경찰봉 물결이 춤을 추면서 다가온다. 우리동네 자율방범대다. 수호천사가 따로 있나 너무 반갑고 감사하여 눈물이 핑돈다. 감동이 다.

주민들이 동네를 오다가다 마주치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골목길 한 귀퉁이에는 00동 자율방범대라는 컨테이너박스 초소가 놓여 있다. 밤이면 전장 모서리에서 빨간 경광등이 뽀개덕 소리를 내며 쉼 없이 돌아간다. 이곳을 지나치는 지역 주민들은 항상 궁금하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조건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일한 대가는 받고 있을까 등등 지금부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우리 동네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로 만들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각종 자율방범대장에게 “나도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고 신청하면 자율방범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추천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할 수 없을 때 자율방범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 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이나 광역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임금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가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2023년 4월 27일)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자체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었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 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 장비, 또 차량을 운행한 곳은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활동비는 고사하고 야간 간식비도 충분하지 않아서 먹서용 커피 한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개인 사비를 각출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 85개 자율방범대로 인원은 174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야간 활동비를 바라고 현재 순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개인 건강을 위해서, 봉사 활동이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인 광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한 퇴직자공로사업으로 경찰과 관련있는 자율방범대 어드바이저(자문관)로 위촉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자신들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들은 혹한의 냉기를 뚫고, 또 폭염 속에 속옷을 땀에 적셔가면서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길을 묵묵히 오늘밤도 걸어가고 있다.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거리가 조성된 것도 이들의 발자국의 흔적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이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시간과 몸을 바쳐서 봉사활동하는 희생을 더 이상 바라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율 봉사라는 좋은 말로 테두리에 가두어 두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방관자적인 시선으로 더 이상 바라보아서도 안될 것 같다.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라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셔도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금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0달러를 넘었다.

이들에게 이제는 봉사활동이라는 테두리를 걷어 낼 때도 되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야간 밤거리를 누비는 시간만큼 충분한 활동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하루에 단돈 만원이라도 이들 손에 쥐어준다면 방범대는 더욱 활성화되고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땀에 젖은 몸을 녹일 수 있는 시원한 음료수 한잔씩이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간식비라도 충분히 지원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그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

우리 시민들도 밤거리에서 반짝이는 불봉 물결을 마주친다면 반갑다는 그 생각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큰소리로 격려하는 한마디라도 보내주세요.

오늘밤에도 밤거리를 누비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발자국의 흔적과 반짝이는 불봉의 물결에 힘을 실어 시민들도 안전하고 포근한 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社 說

범정부적 결단 필요한 금호타이어 화재

위기극복 위해 신속 지원 해야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잇따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복구를 위해서만 최소 수개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규모는 가능하기조차 어렵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

물적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손실은 엄청나다. 당장 임직원과 지원, 협력업체 등 직원만 24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어룡동과 송정1·2동, 도산·신흥동 등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도 7만여 명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용불안도 걱정이다. 이번 화재로 광주공장의 3분의 2가 전소됐고, 수개월간 공장가동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언제 재가동이 이뤄질 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복구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피해 규모만으로도 법에 규정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으로 충분하다.

이런 피해를 지자체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도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와 화재 진화 투입장비 임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근로자와 회사측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절실하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지원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는 화재진압과 차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고용불안의 위기에 내몰린 임직원과 주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진행한 뒤 근로자 해고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광주의 위기’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결단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을 돕는 길이다.

군공항 이전, 구체적 이행계획 내놔야

선거용 메시지 소비패션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 지원 △대통령 책임 조정 △무안 군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인 군공항 이전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기존 방식은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구조였으나, 약 1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했다. 무안군의 반대 또한 결정적 걸림돌이었다.

이 후보가 밝힌 구상은 대구 군공항 이전과 유사한 국가 주도 모델을 광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약 14조원이 투입돼 의성과 군위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

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언급하며 “광주도 국가가 추진하면 가능하다.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건은 구체성과 실행력이다. 무안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공약일 뿐이며,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공모 방식 도입”과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을 촉구하며,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공약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말보다 구체적 이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 확보 방안, 소음 저감 기술,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 등 피해 최소화과 이익 공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직속 갈등조정기구 설치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행정적 체계를 갖춘 실천 기구가 돼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 모두의 미래가 걸린 과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사안을 단지 선거용 메시지로 소비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법이 아닌 ‘실행’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용 환		편집국장 박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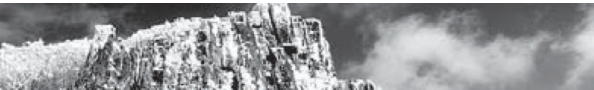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吉凶화복이 항상 바뀌어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다. 이는 중국 고전 ‘회남자’의 ‘인간훈’ 편에서 유래됐다.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라며 낙심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말은 다른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노인은 다시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라며 기

뻐하지 않았다. 이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

해 전쟁에서 징집되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새옹지마’는 이처럼 인생의 일들이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고사성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생사 새옹지마는 야구에도 적용된다. KIA타이거즈가 그렇다. KIA타이거즈는 지난해 정규시즌에서 공수 양면을 압도하며 87승 2무 55패(승률 0.613)로 7경기를 남겨놓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어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플레이오프를 거친 정규시즌 2위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4승 1패를 거두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KIA타이거즈는 올해도 1강으로 꼽히며 13번째 한국시리즈 제패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꼽혔다. 하지만 시즌 개막 후 김도영을 시작으로 박찬호, 김선빈, 곽도규, 나성범, 위즈덤 등 주축선수들의 줄부

상이 이어졌고, 불펜 불안과 침체된 타선까지 겹치면서 이달 16일까지 하위권에서 허덕였다.

그러나 KIA 선수단은 실망하지 않고 절치부심했다. 시즌 초창기에 다진 시련으로 삼고 이겨내기 위해 똘똘 뭉쳤다. 그 결과 지난주 6연전부터 호랑이들의 기운이 살아났다. 선발진과 불펜진이 안정된 마운드를 이끌었고, 타격도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2승 1패,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3승을 챙기면서 8위였던 순위를 공동 4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주 기세가 이어지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디펜딩 챔피언’다운 위용을 내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야구사 새옹지마